

#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모집요강

### I 대 회 개 요

#### □ 대회 취지

2030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토론 문화 활성화

#### □ 주최·주관, 후원기관

▶ 주최·주관 : (사)태평양시대위원회

▶ 후 원 : (재)통일과나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참가 자격

▶ 전국 대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 단, 역대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결승진출자 참가 불가

▶ 팀별 신청(2인 1팀)

\* 팀명으로 신청하되, 팀명에 지역명, 학교명 등 인적사항 관련 내용 기재 불가

\* 팀원 간 소속 학교가 같을 필요는 없음

#### □ 주요 일정 (코로나19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내 용
참가 접수	9. 30.(금)	▶ 『참가신청서』, 『논술문』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10. 30.(일)	▶ 모집요강 및 예선 발제문 공개
본선진출팀 발표	11. 02.(수)	▶ 제출자료 : 참가신청서, 논술문, 재학증명서(참가자 전원)
		▶ 신청방법 : 이메일(2030debate@naver.com) 제출
16강·8강	11. 18.(금)	▶ 온라인 경기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4강·결승	11. 19.(토)	▶ 오프라인 경기

□ 시상 내역

구 분	팀 수	시 상 내 역
대 상	1팀	상금 150만원+통일부장관상+2030통일단기연수 혜택
최우수상	1팀	상금 100만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 +2030통일단기연수 혜택
우 수 상	2팀	상금 50만원

□ 대회 방식

- ▶ 예선 : 제출받은 「논술문」 심사
- ▶ 본선 : 16개 팀 토너먼트, 2:2 찬반토론

□ 토론 논제

- ▶ 예선  
「논제1.」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후·환경협력 방안은?  
「논제2.」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은?
- ▶ 본선  
본선 논제는 추후 공개 예정

□ 제출서류 및 접수

- ▶ 제출서류
  - ①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포함)
  - ② 논술문
  - ③ 재학증명서(참가자 전원)  
\* 참가신청서 및 논술문 양식은 태평양시대위원회(pacificera.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접수방법 : 10.30.(일) 자정까지 이메일(2030debate@naver.com) 제출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II

# 세부 내용

### □ 참가신청 방법

#### ▶ 양식 다운로드

- ▶ 태평양시대위원회 홈페이지(pacificera.kr) ⇨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 ▶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모집 공고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참가신청서』, 『논술문』 양식 다운로드

#### ▶ 제출 서류

##### ① 참가신청서

- ▶ 팀명, 참가자 2인의 인적사항(사진 첨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모두 기재
- ▶ 파일명은 "팀명\_참가신청서" 형태로 작성

##### ② 논술문

- ▶ 주어진 2개의 예선 논제 중 1개를 선택  
「논제1.」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후·환경협력 방안은?  
「논제2.」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은?
- ▶ 발제문(해당 문서 「붙임1」)을 참고하여 논술문 작성
- ▶ 글자크기 10pt, 3페이지 이내 (참고문헌·각주 포함)
- ▶ 파일명은 "팀명\_논술문" 형태로 작성

##### ③ 재학증명서

- ▶ 2022년 9월 이후 발급받은 참가팀 2명 전원의 재학증명서를 PDF 또는 JPEG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대체 가능
- ▶ 파일명은 "팀명\_이름\_재학증명서" 형태로 작성

▶ 참가 신청

- ▶ 「참가신청서», 「논술문», 「재학증명서」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넣고 압축 (압축 파일명은 “팀명” 으로 함)
- ▶ 압축 파일을 첨부, 이메일(2030debate@naver.com)로 제출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예선 심사

참가 접수 마감 이후, 제출받은 각 팀별 『논술문』 심사

▶ 심사기준

논술문의 논제 이해도, 논리성, 창의성, 형식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본선진출팀 선발

심사위원단 심사점수 합산 기준 고득점 순으로 상위 16개 팀을 본선 진출 팀으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홈페이지 공지

□ 대회 본선

▶ 일시 : 2022. 11. 18.(금) ~ 2022. 11. 19.(토)

▶ 토론논제

「논제 1」 추후 공지

「논제 2」 추후 공지

대 회	논 제
16강전	논제 2
8강전	논제 1
4강전	논제 2
결승전	논제 1

▶ 토론방식

16강·8강 : 온라인 경기

4강·결승 : 오프라인 경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경기’는 온라인 경기로 대체될 수 있음.

▶ 토론 시간

내 용	진행시간		비 고
	16강 · 8강	4강 · 결승	
① 찬성팀 기초발언	2분	2분	
② 반대팀 기초발언	2분	2분	
③ 자유토론(찬·반)	24분(12분)	28분(14분)	팀별(1회) 최대2분 발언
④ 반대팀 맺음말	1분 30초	1분 30초	
⑤ 찬성팀 맺음말	1분 30초	1분 30초	
합 계	31분	35분	

▶ 기타

본선 진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본선안내서』를 통해 공지 예정

「논제1.」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후·환경협력 방안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은 도무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광복절 추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상반기에만 17차례에 걸쳐 미사일 33발을 발사했으며 핵미사일 발사유예를 파기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 군사안보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에 가까운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의 정상화는 소원해 보인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노동신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을걷이보다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없다"고 강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안보적 긴장과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 등은 기후·환경 분야를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제시하였다.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는 환경, 생태 등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대립·갈등 관계를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긴장완화(Détente)를 결합한 용어로 분단구조하에서 생태·환경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데탕트'와 같은 기후·환경 협력은 비전통안보영역에 해당해 논의에 부담이 적고 북한이 추진하는 식량난 해결 및 산림복원 정책 등과도 일맥상통하기에 오랜 기간 정체된 남북교류협력의 마중물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남북 기후·환경협력의 논의는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합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8년에는 두 차례의「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에 합의한 후 일부 분야에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짧은 시간에 높은 수준의 기후·환경협력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과 관련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유엔(UN)에 제출하는 등 국제기구에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여 왔기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의 접촉을 접근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본 논제는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가 보편적인 의제로 자리한 시점에, 경색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기후·환경협력에 주목한다. 남북 간 기후·환경협력은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 비군사적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산림파괴, 식량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한반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창의적인 기후·환경협력 방안을 논해주기를 바란다.

## 「논제2.」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목도와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했고, 7인조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수차례 빌보드차트 1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1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아 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 차원의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콘텐츠의 강세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했지만, 북한·통일 등 남북문제와 관련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김현식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적을뿐더러 여전히 ‘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상당수 국가의 문화콘텐츠 속 북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테러를 일삼는 등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북한에 대한 한정된 콘텐츠로 인해 막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북한·통일에 관해 타국 콘텐츠에 나타난 고정관념은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져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 간 외교에 비해 상대국 대중에게 문화·예술·원조 등 방식으로 공감대를 이끄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콘텐츠를 북한·통일과 연계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국가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문제 및 통일에 관한 의제 선점을 주도해나가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남북 문화교류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다양한 북한·통일 관련 문화콘텐츠가 제작·활용되고 있다. 남북 대사관의 협력을 다룬 『모가디슈』나 남북 형사가 공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인 『공조』, 『공조 2』 등의 영화는 휴머니즘과 동포애에 집중했던 예전 콘텐츠와 달리 현실성과 남북협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명소에 관련 콘텐츠를 투사하고자 한 시도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에 통일 패러다임을 접목해 사람 간 통일을 이루자는 의도를 담았다. 이렇듯 다양하게 제작·활용되는 북한·통일 콘텐츠를 발전시켜 세계인들과 공유한다면 북한·통일에 관한 심층적인 관심과 이해를 촉발해 한반도 평화 구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제는 국내를 넘어 북한·통일에 관한 세계인의 관심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에 집중한다.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현재,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문화콘텐츠의 제작·활용은 비핵화뿐만이 아닌 남북 간 화해협력, 평화공존 등 다양한 의제에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의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을 통해 세계적인 한반도 평화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을 논해주길 바란다.

\*본 논제의 문화콘텐츠란 남북교류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 및 각국이 단독으로 제작한 콘텐츠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북한·통일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함

##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참가신청서

팀 명	지역명, 학교명 등 인적사항 관련 팀명 사용 불가					
사 진 1 (이미지 파일)	성 명	홍길동	소속대학	한국대	학과(부)	00학과(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89-1			생년월일	01.01.01
	e-mail	tongiltoron@naver.com		핸드폰번호	010-2021-2030	
사 진 2 (이미지 파일)	성 명		소속대학		학과(부)	
	주 소				생년월일	
	e-mail			핸드폰번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p>(사)태평양시대위원회는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예정입니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10회 2030통일토론대회 관련 통지·연락·안내 및 본 대회의 홍보</p> <p>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소속대학, 학과, 주소, e-mail, 핸드폰번호, 사진, 예선심사자료</p> <p>3.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학생통일토론대회 개최 및 홍보 등을 위한 기간 (3년)</p> <p>4.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 거부 관리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생통일토론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접수 방법	<p>▶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포함), 논술문, 재학증명서 (참가자 전원)</p> <p>▶ 제 출 처 : 10월 21일까지 이메일(2030debate@naver.com)로 제출서류 송부 * 상세내용 태평양시대위원회 홈페이지(pacificera.kr) 참조</p>					

(사)태평양시대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에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 . . .

성명 : \_\_\_\_\_(서명)

성명 : \_\_\_\_\_(서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귀하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예선 논술문

팀 명	
논 제	

- 글자크기 : 10pt
- 글 씨 체 : 함초롬바탕
- 원고분량 : 3페이지 이내 (출처, 각주 포함)
- 원고제출 : 1팀(2명)당 1부만 제출
- 문서편집 : 기존 형식에서 변경 금지
- 논제 : 논제 2개 중 택 1

「 논제1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후·환경협력 방안은?

「 논제2 」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활용 방안은?

※ 각 논제의 발제문을 참고하여 논술문을 작성

※ 내용을 인용할 때는 각주를 통하여 반드시 출처<sup>1)</sup>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논술문 작성 시에는 본문의 내용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ex. 태평양시대위원회 홈페이지(pacificera.kr)